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김 미 영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R.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에 나타난 아이러니 표현에 관한 연구

2021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유 리

R.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에 나타난 아이러니 표현에 관한 연구

김 미 영 교수 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20년 11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반주학과
이 유 리

인 준 서

이유리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인준함

2020년 11월

심사위원장 지 형 주 (인)

심 사 위 원 신 인 선 (인)

심 사 위 원 김 미 영 (인)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 문 개 요

본 논문은 작곡가 로베르트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표현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아이러니’란 일반적으로 ‘반어’의 의미를 가지며,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와 표면적으로 표현하는 말이 다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아이러니는 하이네 시의 특징적인 어법으로서 이를 슈만이 음악적으로 어떻게 표현했는지 분석하였다.

우선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의 예술가곡에 대해 살펴보았고, 아이러니의 의미와 어원, 그리고 하이네의 시에서 아이러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보았다. 슈만의 예술가곡에서 하이네의 아이러니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는 대하여 슈만의 유명한 연가곡인 《시인의 사랑》을 통해 제시하였다. 《시인의 사랑》에 대한 전체적인 개괄과 이 연가곡에 나타난 슈만만의 특징적인 조성 구조에 대해 살펴본 후, 하이네의 아이러니에 관한 표현이 잘 나타나 있는 제 1곡 〈기적처럼 아름다운 오월에〉(Im wunderschönen Monat Mai),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제 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을 골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하이네는 아이러니를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시어를 사용하지만 그 내면에 사랑의 고통을 담았고, 낭만주의적 음조에 환상을 깨듯이 화제를 급속히 전환시키고 풍자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 등의 방법으로 아이러니적 어법을 드러낸다. 이런 하이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은 이별의 아픔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후에 하이네는 불행한 그의 사랑을 다양한 표현을 통하여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켰다. 슈만은 이런 하이네의 작품에 깊은 정식적 교감을 느꼈고 그의 시를 예술가곡에 잘 표현한 작곡가 중 하나이다. 그는 하이

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을 대부분 조성이나 화성을 통해 표현하였고, 시의 장면을 피아노에 담았다. 또는 아름다운 시어에 숨겨진 고통을 단순하게 단조 화성으로 표현한다거나 단조적 차용화음을 빌려와 표현하였고, 곡의 조성을 모호하게 쓰기도 하였다. 또한 아이러니를 드러낼 수 있는 장면을 피아노에 직접적으로 등장시켜 화자의 심정을 피아노를 통해 더욱 부각시킨다. 슈만은 이러한 여러 방법들을 통해 아이러니를 드러냈고, 시에 나타나는 글만으로는 부족한 내면의 의미를 음악을 통해 나타내었다.

목 차

논문개요

Ⅰ. 서론 ····· 1

Ⅱ. 이론적 배경 ····· 3

1.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 ····· 3

1) 낭만주의 예술가곡 ····· 3

2) 슈만의 예술가곡 ····· 7

2. 아이러니의 의미와 그 예술적 표현 ····· 10

Ⅲ. 슈만의 예술가곡 《시인의 사랑》에 나타난 아이러니적 표현에 대한 분석 고찰 ····· 15

1.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에 대한 개괄 ····· 15

1) 시의 내용과 특징 ····· 15

2) 연가곡집 구성 및 내용 ····· 16

2.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곡들에 대한 분석 ····· 22

1) 제1곡 <기적처럼 아름다운 오월에>(Im wunderschönen Monat Mai) ····· 22

2) 제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 28

3) 제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 34

Ⅳ. 결론 ····· 38

참고문헌 ····· 41

ABSTRACT ····· 44

표 목차

〈표 1〉《시인의 사랑》의 조성표 ····· 16

〈표 2〉《시인의 사랑》의 노래 배열순서, 조성과 시집번호 ····· 18

〈표 3〉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의 마디별 조성 변화 ····· 23

〈표 4〉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의 마디별 조성 변화 ····· 29

〈표 5〉 제 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의 마디별 조성 변화 ···· 35

악보 목차

<악보 1>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마디 1-6 ····· 24

<악보 2>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마디 7-13 ····· 25

<악보 3>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마디 9-10 ····· 26

<악보 4>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마디 11 ····· 26

<악보 5>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에> 마디 24-26 ····· 27

<악보 6>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마디 1-38 ····· 30

<악보 7>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마디 21-22 ····· 32

<악보 8>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마디 80-84 ····· 33

<악보 9> 제 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마디 1-14 ····· 36

<악보 10> 제 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마디 39-44 ····· 37

1. 서론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은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 이후 독일 예술가곡을 발전시킨 대표적인 작곡가이다. 문학적인 재능 또한 있었던 슈만은 당대의 여러 시인들과 정신적인 교류를 하며 그들의 시를 예술가곡으로 더욱 승화시켜 표현하였다. 슈만은 하이네의 시를 가사로 하여 2개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 24)와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 48) 을 작곡하였다. 괴테 이후 독일 최고의 시인으로 불리는 하이네는 『노래의 책』(Buch der Lieder)을 비롯한 많은 시집을 출판하였으며, 그의 시는 많은 작곡가들에 의해 예술가곡으로 재창조되었다.

하이네의 시적 어법에서 흥미로운 것은 아이러니적 표현이다. 특히 그는 사랑의 실연을 아이러니한 어법을 통해 시에 드러냈다. '아이러니'란 어떤 것을 말하며 반대의 것을 뜻하는 것, 즉 표면에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뜻을 숨기고 있다는 것이다. 겉보기에는 낭만적인 단순한 시이지만 그 속에는 아이러니한 요소와 풍자라는 이분법적인 요소들이 내재되어 있다. 그렇다면 하이네 시에 내재된 아이러니적 의미를 그와 정신적 공감대를 형성했던 슈만은 그의 예술가곡에서 어떻게 표현하였을까? 본 논문은 이러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의 대표적인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에 나타난 아이러니의 의미와 그 음악적 표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 의하면, 음악학과 대학원을 비롯하여 독어 독문학과, 교육학과 대학원에서 《시인의 사랑》을 주제로 한 약 100편의 논문들이 있다. 이 중 음악학과 석사 학위 논문을 중심으로 찾아보았을 때, 열람 가능한 논문은 총 59편이다. 단순히 화성을 분석한 논문이 28편, 반주부를 집중적으로 분석한 논문이 7편, 시와 음악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 17편 그리고 그 외의 주제를 가진 논문 7편이 있다. 실황이나 음반 연주를 비교 분석한 논문

3편, 같은 텍스트를 사용한 다른 작곡가 작품의 비교 논문 2편, 슈베르트의 작품과 비교 분석한 논문 1편, 패턴 별로 분석한 논문 1편이 그 외의 주제를 가진 논문이다. 연가곡《시인의 사랑》에 대해 이렇듯 여러 방면에서 연구되었지만, 작품에 내재된 중요한 의미인 '아이러니'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1]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지금까지 슈만의 《시인의 사랑》을 주제로 가진 논문에서는 조명되지 않았던 '아이러니'의 시적 의미와 그 음악적 표현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을 통해 하이네 시 속의 아이러니를 탐색하고, 슈만이 이를 예술가곡에서 어떻게 음악화하였는지 고찰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작곡가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먼저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의 예술가곡에 대해 살펴본 뒤, 아이러니의 의미와 하이네의 시에 나타나는 아이러니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알아보려한다. 이어서 하이네의 시집 『노래의 책』의 일부인 <서정적 간주곡>의 특징과《시인의 사랑》의 곡을 전체적으로 개괄한 후,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3곡을 골라 집중적으로 분석·고찰할 것이다. 고찰의 대상이 된 작품은 제1번 〈기적처럼 아름다운 오월에〉, 제9번 〈그건 피리 소리, 깽깽이 소리〉, 제11번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슈만의 연가곡 《시인의 사랑》에 내재된 아이러니적 의미가 반주자의 연주와 해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1) 이아람의 "H. Heine의 서정적 간주곡 중 음악적 표현을 위한 R. Schumann의 시어 선택에 대한 연구" : Dichterliebe Op.48을 중심으로"(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이 아이러니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곡 분석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러니가 분석되진 않았다.

Ⅱ. 이론적 배경

1. 낭만주의 예술가곡과 슈만

1) 낭만주의 예술가곡

19세기 유럽 사회는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났다. 1789년 프랑스 혁명, 1815년 나폴레옹의 패망, 영국에서 시작된 산업 혁명 등 크고 작은 역사적 사건들이 벌어지는 시기로 낭만주의 음악은 이러한 역사적 흐름과 깊은 연관을 맺고 있다. 일반적으로 19세기 전체를 낭만주의 시대로 간주하지만 1815년의 정치적, 경제적 사건들이 낭만주의 시대의 적절한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2] 나폴레옹의 패망과 왕정 복구는 예술가들에게 좌절을 안겨주었고 그들은 현실을 떠나 그들의 이상과 감정의 세계를 예술로써 승화시켰다. 그들의 예술의 주제는 “자연, 사랑, 꿈, 밤, 달빛 등 낭만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신화, 전설, 요정 등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포함한 무한한 음악 자료들”[3]로 연결되었다.

“낭만적이라는 용어는 영웅적인 인물이나 사건을 다루는 중세의 문학을 지칭하는 로망스(romance)에서 유래한 것”[4]으로 “뭔가 어렴풋하고 전설적이며 환상적인 것, 일상적인 실제와 거리가 먼 상상에 의한 이상적 세계를 암시한다.”[5] 낭만주의는 문학에서 출발한 운동[6]이었고 박켄로더(Wilhelm Heinrich Wackenroder, 1773-1798), 틱(L. Tieck, 1773-1853), 노발리스(Novalis, 1772-1801)

---

2) 민은기 외 공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이앤비플러스, 2013) , 55.
3) 홍세원, 『낭만파 음악』(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13.
4)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나남, 1997), 142.
5) 민은기 외 공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55.
6) 홍정수, 오희숙, 『음악미학』 (음악세계, 1999), 157.

등에 의해 시작되었다. 이 용어가 음악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호프만(E. T. A. Hoffmann, 1776-1822)이 베토벤(Ludwig van Beethoven, 1770-1827) 심포니 5번에 대한 비평문에서 '낭만'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시점부터이다.[7]

낭만주의 시대에서 가장 이상적인 예술은 기악음악이었다. 당시 문학가들은 기악음악이 가사와 시각적 이미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가사 너머에 있는 사유와 감정, 인상을 환기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8] 즉 가장 순수한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기악음악, 즉 절대음악(absolute music)라고 본 것이다. 호프만(E. T. A. Hoffmann, 1776-1822)은 기악음악에 대하여 『일반음악신문』(1810)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독자적 예술로서의 음악을 말한다면, 이는 언제나 기악을 의미한다. 기악은 어떤 다른 예술의 도움이나 혼합을 모두 배제하는 독자적인 것이며 단지 음악에서만 볼 수 있는 예술적 본질을 순수하게 말한다. 음악은 모든 예술 중 가장 낭만적인 것이며... 음악은 사람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열어준다." [9]

언어를 능가하는 이러한 기악 음악은 문학과 결합하는 양상을 띠는데 낭만주의 예술가곡(Kunstlied)이 그 대표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다. 예술가곡은 독일을 중심으로 발달되었고 음악보다 시를 우선시하는 계몽주의적 성격의 18세기의 가곡[10]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무엇보다 피아노 즉, 음악의 비중이 커지게 된다. 음악을 최고의 예술로 숭앙하는 낭만주의 음악관과 더불어 19세기에 들어서 수준 높은 시의 등장, 고전 시대에 이룩한 수준 높은 기악 음악과 피아노의 기능적 발달은 예술가곡의 탄생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하나의

---

7)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142.
8) 민은기 외 공저,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56.
9)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152.
10) 베를린 악파를 중심으로 발전된 18세기 가곡은 음보다 시가 중요시 되었고 모든 사람들이 쉽게 부를 수 있는 유절형식의 가곡이 작곡되었다. 민요적 성격을 가지며 계몽적, 사회교육적인 용도로 쓰인다.

장르로써 남는 토대가 되어준다. 슈베르트(Franz Peter Schubert, 1797-1828)로부터 시작으로 발전된 예술가곡은 슈만(Robert Alexander Schumann, 1810-1856), 브람스(Johannes Brahms, 1833-1897), 볼프(Hugo Wolf, 1860-1903), 리하르트 슈트라우스(Richard Strauss, 1864-1949)와 같은 작곡가들에 의해 낭만주의의 대표적인 장르로 발전된다. 이러한 낭만주의 시대 예술가곡의 발전 요인을 좀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기악음악을 더 높이 평가하는 낭만주의 시대의 미학관을 들 수 있다.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는 시가 음보다 더 중요했었다면, 19세기에서는 음이 시보다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낭만주의 시대의 음악에서는 특히 주관적 감정이 매우 중요시되는데 이는 기악음악에서 가장 잘 보인다는 것이다.[11] 감정의 세계는 순수하고 원초적인 정신세계를 표현할 수 있고 관습적인 것에 영향을 받지 않는 순수한 인간의 정신 영역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기악 음악은 "머나먼 정신세계를 예감케 해주는 형이상학적 언어"[12]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며 새롭게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둘째, 낭만주의 독일 문학의 발달에 따라 높은 수준의 서정시가 많이 쓰여졌다. 낭만주의 시대에서도 서정시[13]는 여전히 대표적인 시 장르였다. 괴테, 실러, 뤼케르트(Friedrich Rückert, 1788-1866), 아이헨도르프(Joseph von Eichendorff, 1788-1857),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 뫼리케(Eduard Friedrich Mörike, 1804-1875)와 같은 시인들이 대거 등장했던 시기로 이들의 시는 작곡가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그들의 가곡 텍스트로 사용되었다. 서정시의 특성은 "가장 내면적인 말로 할 수 없는 것을 표현"한다는데 있다.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시가 발설하고자 하는 핵심점은 행간에 있는데,"[14] 음악이 이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피아노 반주가 중요한 역할을 하

11)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150.
12) 김미영, "가곡에서 예술가곡으로", 『낭만음악 9』(1996), 9.
13) 개인의 감정이나 견해를 표현하는 주체에 대한 짧은 유절형식의 시
14) 홍정수, 조선우,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2000), 433.

게 된다.

셋째, 시적 언어를 능가하는 음악적 표현력은 고전시대에 발달한 기악 작법으로 가능하게 된다. 단순한 선율이 아닌 화성 및 음악에 내재되어있는 논리가 중요해지는데, 이런 논리는 하이든으로부터 시작되어 모차르트 베토벤이 발전시킨 테마 모티브 작업(Thematisch-motivische Arbeit)[15]에서 잘 나타난다.[16]

넷째, 피아노 기능의 발달도 예술가곡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이다. 당시엔 악기 제작 또한 산업 혁명으로 인해 개선된 사업 중 하나였다. 피아노에 댐퍼 페달의 생기게 됨으로써 건반에서 손을 떼고도 음을 울리게 하여 "풍부한 공명 효과, 오케스트라 음향에 비견할 만큼 큰 음향, 피아노 특유의 새로운 효과를 가능케 했다."[17] 이렇게 풍부한 표현력을 갖추게 된 피아노는 예술가곡에서 시만으로는 부족한 섬세한 부분들을 표현하는 역할을 하게 되며 작곡가들의 사랑을 받는다.

슈베르트는 낭만주의 예술가곡의 첫 작곡가로써 600여곡이 넘는 예술가곡을 남긴다. 그가 작곡한 "물레 감는 그레첸"(Gretchen am Spinnrade D.118)은 첫 번째 예술가곡으로써 예술가곡 발달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준다. 이 곡에서 피아노의 반주는 "생략할 수 없는 반주"(obligates accompagnement)로써 성악과 동등한 비중을 가지게 된다.[18] 더 이상 멜로디에 종속되지 않고 그 곡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다.[19] 다음 해 "마왕"(Erlkönig D.328)의 작곡으로 슈베르트는 그만의 양식을 구축하며 빈의 평론계에서 리트 작곡가로서 주목받게 된다.[20]

---

15) 처음 주어진 주제나 모티브를 다양하게 바꿈으로써 하나의 악장을 유기적으로 형성하는 기법
16) 김미영, "가곡에서 예술가곡으로", 134.
17) 민은기 외 공저,『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52.
18) 김미영, "가곡에서 예술가곡으로", 136.
19) 김지혜, "R. 슈만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7.
20) 김미영, "F.슈베르트와 리트",『서양 음악학 4』(2001), 212.

2) 슈만의 예술가곡

슈만은 슈베르트의 가곡을 잇는 작곡가로써 낭만주의 예술가곡사에서 중요한 작곡가로 손꼽힌다. 그는 문학과 음악 모두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고 문학가가 될지 음악가가 될지에 관한 고민도 많았었다 하지만 음악을 택했던 것은 언어, 즉 시로 발설하기 힘든 부분을 음악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슈만에겐 문학적으로 중요한 두 명의 인물이 있는데, 바로 독일 소설가인 장 파울(Johann Paul Friedrich Richter, 1763-1825)과 시인 하이네이다. 슈만은 이 둘에게서 자신과 같은 동질성을 발견하였다. 그들의 작품에서 나타나는 유머, 아이러니, 시적 상상력은 슈만의 관심을 끌었으며 특히 장 파울의 작품은 평생 동안 슈만의 일생에 영향을 끼쳤다.[21] 하이네와는 뮌헨에서 딱 한 번의 만남이 있었는데 슈만의 생각보다 친절했고 마지막 배웅에서 보여준 하이네의 아이러니컬한 미소는 젊은 슈만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22]

슈만은 시기별로 다른 장르의 음악을 작곡했었다. 슈만 또한 기악 음악을 가장 이상적인 음악으로 손꼽았었고 이에 따라 1830년대에는 피아노 작품 작곡에 집중한다. 이후 1840년 가곡의 해, 1841년 교향곡의 해, 1842년 실내악의 해, 1843년 오라토리오의 해로 나누어진다. 피아노 작곡에 심취해있던 슈만이 1840년 한 해 동안 138개의 가곡을 작곡한 것은 오랜 법정 싸움 끝에 클라라와의 결혼이 성사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 해 2월 슈만은 다음과 같은 편지도 남긴다.

> “오 클라라, 노래를 작곡한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느낌이오... 이러한 일들이 또 얼마나 쉽게 이루어 졌는지 그리고 내가 그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당신은 모를 것이오. 노래를 작곡할 때 나는 대부분 서서 혹은 걸어다니

21)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독어독문학』(2009), 170.
22) 김희열, 위의 글, 171.

면서 했소, 피아노 앞에 앉아서가 아니라, 그것은 손가락을 통해서 전달되는 음악과는 완전히 다른 음악이오 -훨씬 더 직접적이고 선율적인 것이오." [23]

슈만은 예술가곡을 통해서 그가 원래 원했던 표현을 완성시킨다. 슈만은 언어의 한계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내며 이를 수준 높은 음악적 언어로 피아노 작품에 풀어내려 했다. 이후 가곡 작곡을 통한 언어와 음악의 만남은 언어만으로는 표현이 충분하지 못했던 시적 세계를, 그리고 음악만으로는 모호한 시적 세계를 더 명료한 영역에서 표상하는 결과를 낳았다.

슈만의 예술가곡에서 피아노는 성악과 동일한 비중을 가지고 때로 그 이상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24] 슈만의 가곡에서는 노래와 반주 성부가 서로 유기적으로 얽혀있는 것이 특징이다. 길어진 피아노 전주, 간주, 후주를 작곡함으로써 단순한 반주의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전주는 곡 전체의 분위기를 암시할 수 있게 해주고 간주는 곡의 통일감을 주는 역할을 하며 후주는 가곡의 분위기를 지속하며 노래가 다 표현하지 못한 것을 완성시켜준다. 또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슈만은 다른 작곡가들과는 다르게 시 선정에 신중했다. 하이네, 아이헨도르프, 괴테, 샤미소, 뤼케르트. 울란트(Johann Ludiwig Uhland, 1787-1862), 뫼리케 등 유명한 시인들의 시를 가곡의 텍스트로 활용했고 그 중 하이네의 시를 가장 많이 채택하여 작곡하였다.

슈만의 가곡 작곡 시기는 1840년과 1847년으로 나뉜다. 1840년, 슈만은 연가곡 작품에 집중하는데 하이네의 시로 작곡한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 괴테와 하이네를 비롯한 여러 시인의 시들을 가사로 하는《미르텐》(Myrthen op.25), 아이헨도르프의 시로 작곡한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39), 샤미소의 시에 곡을 붙인《여인의 사랑과 생애》(Frauenliebe und

23) 김미영, "가곡에서 예술가곡으로", 134에서 재인용.
24) Dietrich Fischer-Diskau, 『리트, 독일예술가곡』, 64.

Leben op.42), 그리고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 모두 같은 해에 작곡된 곡들이다. 또한 조성의 움직임은 슈만 연가곡의 토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곡 간의 조성을 인접한 조성 또는 나란한 조(relative key)로 옮겨가면서 곡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주게 하며, 《시인의 사랑》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1847년에서 1852년은 두 번째 슈만의 가곡 작곡 시기이다. 앞서 슈만이 작곡했던 교향곡과 실내악 작곡을 통한 좀 더 큰 스케일의 가곡이 작곡되며 더욱 깊은 내적 세계의 확대와 침체를 보여준다.[25] 《니콜라우스 레나우의 6개의 시와 레퀴엠》(Sechs Gedichte und Requiem op.90), 《빌헬름 마이스터에 의한 가곡집》(Lieder und Gesänge aus Wilhelm Meister op.98a), 마지막 성악 작품인 《마리아 스튜어트 여왕의 시》(Gedichte der Königin Maria Stuart op.135)와 같은 곡들을 남긴다.

25)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도서출판 음악세계, 2002), 289.

2. 아이러니의 의미와 그 예술적 표현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반어'의 의미를 가지며 화자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미가 표면적으로는 사용하는 말과 다른 것을 의미한다. 그리스어 에이로네이아(eirōneia)라는 시치미 뗌, 위장, 변장, 숨김의 의미를 가지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고대 그리스 희극의 주인공들 중 '에이런'(eiron)이라는 인물에서 이 단어의 어원을 찾을 수 있다. 에이런은 약자로써 겸손하고 양보할 줄 아는 총명한 사람이다. 반면 '알라존'(alazon)이라는 또 다른 인물은 강자로써 허세를 부리고 허풍을 떠는 인물이다. 극중 둘의 논쟁에서 에이런은 자신의 지식과 힘을 숨겨 알라존에게 항상 지는 듯하지만 결과적으로 알라존에 대해 승리를 거두게 된다. 에이런은 자신의 힘과 지식을 숨기고 천진함을 가장했던 것이다. 이런 에이런이라는 인물에서 유래한 개념인 '아이러니'는 표면에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뜻을 숨기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아이러니는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바로 언어적 아이러니와 상황적 아이러니이다. 언어적 아이러니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 아이러니로서 "말을 한 의도와 발화 자체가 반대의 뜻을 가지는 것"[26]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아프지만 아프지 않다고 한다거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참 똑똑하다고 말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상황적 아이러니는 예상했던 상황과 반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졌을 때를 말한다.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아이러니는 소크라테스식 대화법의 특징이기기도 하다. 플라톤의 『국가』(Politeia) 1권의 337a에서 처음으로 나타나는 '에이로네이아'는 소크라테스가 소피스트들을 상대로 사용하였던 하나의 논쟁 방식[27]으로 볼 수 있다. 대화에

---

26) http://s-cp.s-oil.com/home.do. [2020년 10월 23일 접속].
27) 이철주, "소크라테스의 '에이로네이아(Eironeia)'에 담긴 도덕교육적 의미" 『독어독문학』(2009), 7.

서 소크라테스는 자신은 상대가 잘 알고 있다고 믿는 내용에 대해 모른다고 시치미를 떼며 무지한 질문자로써 대화를 이어나간다. 이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의 '무지 고백'이며 이는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socratic irony)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다. 그의 대화 상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상대의 주장을 따르는 척하면서도 질문을 이어나가고 결국엔 상대도 무지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무지를 가장하는 것, 모르는 척 하는 것이 바로 소크라테스적 아이러니이다. 무지를 가장하여 자신의 재능을 축소함으로써 상대를 당혹스럽게 하며 동시에 스스로 자신이 무엇을 알고 모르는지 깨닫게 함으로써 상대를 올바른 사고의 길로 이끈 소크라테스식 아이러니는 이후 대체적으로 수사학의 일부로서 표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사용된다.[28)]

단순히 하나의 비유적 표현으로 볼 수 있었던 아이러니는 낭만주의에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데 문학 작품에서 그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 의미가 확대되어 사용된다.[29)] 낭만적 아이러니는 낭만주의의 시인이자 평론가, 철학자인 프리드리히 슐레겔(Friedrich von Schlegel, 1772-1829)에 의해서 제시되며 이는 낭만적 이념 성취를 위한 하나의 방법론으로 낭만주의 철학의 근본으로 볼 수 있는 존재의 이중성에서 출발하고 있다. 슐레겔의 낭만적 아이러니는 "피히테(Johann Gottlieb Fichte, 1762-1814)의 '나'의 개념, 즉 스스로 인식하고 의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천재의 천부적인 재능에서부터 출발"한다.[30)] 이는 작가로 하여금 자신의 작품에 자기 성찰로 비평을 가하게 함으로써 자기 창조와 자기 파괴 그리고 자기 제한을 반복한다. 작가의 주관을 예술로 자유롭게 펼침과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가지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자신의 작품을

---

28) Ernst Behler,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Iron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이강훈 신주철 옮김 (동문선, 2005), 93.
29) Ernst Behler, 위의 책, 87.
30) 이훈진, "Robert Schumann의 <유머레스크>(Humoreske Op. 20)에 나타난 유머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4.

보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제한을 통해 현실과 이상, 주관과 객관, 유한과 무한, 전통과 진보, 규칙과 불규칙 사이를 매개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둘의 평행을 유지하고자 한다.[31]

하이네는 낭만주의자들의 “환상을 공격하고 그 허구성을 백일하에 드러내기 위하여” 아이러니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하이네의 특유의 작법이기도 하다.[32] “반어의 시인”[33]이라고 말할 수 있는 하이네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사이에 위치한다. 그의 아이러니는 하나의 시 안에 꿈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혼합하는 데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낭만주의 세계의 허황됨을 고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눈을 돌려 현실을 직시할 것을 독자에게 호소하는 기법이기도 하다.”[34] 이런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는 하이네의 시에는 상반된 감정이 드러난다. “이상과 현실, 사랑과 죽음, 그리고 문학과 정치 사이의 갈등 구조를 암시하기도 한다.”[35]

보수적 입장을 취했던 당시 낭만주의 작가들과 달리 자유와 진보를 주장하였던 하이네는 민요조의 4행시를 즐겨 사용하였다. 이러한 민요조의 시를 즐긴 것은 푸케(Friedrich de La Motte Fouqué, 1777-1843), 울란트(Johann Ludwig Uhland, 1787-1862) 그리고 뮐러(Wilhelm Müller, 1794-1827)의 시를 읽고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821년 발표된 《시집》(Gedichte)에서는 민요조의 시뿐만 아니라 하이네만의 독특한 어조를 가지고 있음이 드러난다.[36] 이러한 그의 어조는 고전주의와 낭만주의의 서정시, 발라드, 페트라르카주의 문학[37]에서 영향을 받았다. 하이네의 시에는 사랑이 아름답고 황홀한 것이 아닌,

---

31) 이훈진, 위의 글, 4.
32) Heinrich Heine, 『노래의 책』 김재혁 옮김, (문학과 지성사, 2001), 342.
33)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풍월당, 2019), 44.
34) Heinrich Heine, 『노래의 책』, 343.
35) Heinrich Heine, 위의 책, 344.
36) Heinrich Heine, 『노래의 책 : 하인리히 하이네 시집』, 이재영 옮김 (열린책들, 2016), 348.
37) 페트라르카주의 문학은 중세의 민네장(Minnesang)에서 넘겨받은 것으로 시의 상황 묘사의 배경으로 사용한다. 남자는 끔찍한 사랑의 고통에 빠져있어 사실상 살아있는 망자나 다름이 없으며, 여자는 그 남자를 차갑고 잔인하게 대하고 관심이 없다.

충족되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랑에 대해 얘기하는데 이는 페트라르카주의 시와 비슷하다.[38] 하지만 하이네는 여기에 아이러니 기법을 더하여 자신만의 형식으로 변화시켰다. 사랑의 고통을 내용으로 하면서도 표면적으로는 아름다운 시어를 사용한다거나, 낭만주의적 음조에 환상을 깨듯이 화제를 급속히 전환시키고 풍자적인 결말로 끝을 맺는 등 아이러니적인 수법을 사용한다. 하이네 스스로도 자신의 시가 아이러니로 가득 차 있다고 밝힌 바 있다.[39]

하이네의 이러한 어법은 그가 겪은 이별의 고통에서 시작된다. 하이네는 사촌 아말리아를 사랑하게 되지만 그녀는 하이네가 아닌 동프로이센의 어느 장원소유주와 결혼하게 된다.[40] 이러한 이별의 아픔을 통한 정신적 갈등은 그의 문학작품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치게 되며 그의 아이러니적 어법 또한 이러한 갈등을 통해서 나온 것이다. 하지만 아말리아와의 이별만이 영향을 주었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 하이네는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 그의 불행한 사랑을 다양하게 변주하여 표현하였고, 미적으로 나타냈다.[41] 하이네가 30세 되던 해 출간되었던 시집 『노래의 책』에 나오는 시들의 주제는 사랑에 관한 것이 압도적으로 많다. 총 237편의 시들 가운데 140편 이상이 불행하고 응답받지 못하며, 희망이 없는 사랑을 나타낸다. 상상 속의 행복과 현실 속의 절망 사이에서 화자는 죽음을 갈망한다.[42]

슈만은 하이네를 자신의 시적인 동반자로 여겼다. 슈만 또한 클라라와의 사랑을 비크(Johann Gottlob Friedrich Wieck, 1785-1873)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몇 년간 마음을 애태웠기에 불행한 사랑, 이뤄지지 못한 사랑의 내용을 담은 하이네의 시에 공감하기에 충분하였다.[43] 때문에 슈만이 가곡 작곡을 시작하고 처음으로 작곡한 연가곡은 하이네의 시를 텍스트롤 사용하였다. 《리더크

38) Heinrich Heine, 『노래의 책 : 하인리히 하이네 시집』, 350.
39) Heinrich Heine, 『노래의 책』, 341.
40) 엄선애, 『독일음악 속의 문학』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115.
41) Heinrich Heine, 『노래의 책 : 하인리히 하이네 시집』, 358.
42) Heinrich Heine, 위의 책, 354.
43) Lorraine Gorrell, 『19세기 독일가곡』, 심송학 옮김 (음악춘추사, 2003), 176.

라이스》(Liederkreis op.24)이며 이 연가곡 또한 《노래의 책》에 수록된 시로 작곡하였다. 같은 해 슈만은 다시 한번 더 하이네의 시를 사용하여 16곡으로 구성된《시인의 사랑》을 남긴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슈만이 하이네의 시에서 읽어낸 아이러니를 어떻게 음악화 시켰는지에 대해서 고찰해 보겠다.

Ⅲ. 슈만의 예술가곡 《시인의 사랑》에 나타난 아이러니적 표현에 대한 분석고찰

1. 《시인의 사랑》에 대한 개괄

1) 시의 내용과 특징

슈만의 《시인의 사랑》은 하이네의 시집인 『노래의 책』(Buch der Lieder)에 수록된 <서정적 간주곡>(Lyrisches Intermezzo)을 텍스트로 한다. <서정적 간주곡>의 시는 초반에는 아름다운 사랑에 대해서, 그 뒤는 불행한 사랑과 이뤄질 수 없는 사랑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시집은 1827년 <젊은 날의 고뇌>(Junge Leiden), <귀향>(Die Heimkehr)과 함께 『노래의 책』에 수록되었고, 하이네가 <하르츠 기행에서>(Aus der Harzreis), <북해>(Die Nordsee)를 추가하여 시집을 완성하였다.[44]

『노래의 책』 은 1827년 10월에 출간되었을 당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지만, 후에 하이네의 명성을 확고하게 하는 작품이 되어준다. 하이네의 생전에 13번의 새로운 판을 찍어냈고 그 이후에도 50판 이상이 출간되어 "독일시문학의 영원한 저장품(dem ewigen Vorrat deutscher Poesie)"으로 불린다.[45] 그 중 <서정적 간주곡>은 원래 1821년에 출간되었던 66편의 시가 수록된 시집이다. 간주곡이란 원래 오페라 사이에 나오는 막간극을 뜻하는데, 낭만주의 시대 작곡가들은 이를 하나의 독립적인 기악곡으로 작곡하였다. 이는 "본편은 사라지고 여남은 인상만을 포착"[46]한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하이네의 시

---

44)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60.
45) 엄선애, "하인리히 하이네의 노래의 책과 로베르트 슈만의 시인의 사랑" 『독일어문학』 (2007), 350에서 재인용.
46)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60.

도 이러한 느낌을 준다.[47] 서정적 분위기가 느껴지지만 그 인상은 단편적이고 시적 정황은 간결하다. 이러한 짧은 단상들이 시적으로 이어져 서정적 효과를 내는 것이 하이네의 의도였다.[48]

슈만은 서시가 포함된 66편의 시 중 총 20편의 시를 골라 재구성하여 1840년도 작곡하였고 그 중 16곡만 묶어서 출판한다.

2) 연가곡집 구성 및 내용

《시인의 사랑》은 총 16개의 곡이며, 이 곡들은 서로 조성적으로 긴밀히 연결된다. 첫 번째 곡은 A장조이지만 f#단조로 전주가 시작하여 f#단조로 끝나며 두 번째 곡의 A장조로 옮겨지고 세 번째 곡에서는 D장조로 옮겨진다. 5도권 하강이라는 규칙 안에서 가까운 조성이나 나란한조로 바뀌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는 아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다.

<표 1> 《시인의 사랑》의 조성표

장조	A	D	G	C	F	B♭	E♭	A♭	D♭	G♭	B	E
	2번	3번	4번	7번		**12번**	11번				14번	15번
단조	f#/A	b	e	a	d	g	c	f	b♭	e♭	g#	c#
	1번	5번	6번	8번	9번	10번				**13번**		16번

곡의 순서를 따라가 보면 앞서 언급했던 규칙 속에서 곡들이 연결되어있다. 하지만 12번 곡인 <햇빛 반짝이는 여름 아침에>와 13번 <나는 꿈 속에서 울었습니다>의 조성은 다른 곡들과는 달리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슈만이 의도적으로 배치한 것이다. 13번 곡에서 사랑의 끝이 보이는 내

47)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60.
48) 나성인, 위의 책, 60.

용이 나타나기 때문이다.[49] 이렇게 조성적으로 먼 거리를 배치하여 듣는 이로 하여금 '단절'을 느끼게끔 해준다.[50]

슈만은 20곡으로 작곡했을 때의 조성 변화는 이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4개의 곡을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제외된 4개의 곡은 후에 op.127과 op.142로 분류된다. 4번 곡이였던 <그대의 눈을 바라볼 때면>(Dein Angesicht so lieb und schön)과 16번 곡이였던 <내 사랑 반짝인다>(Es leuchtet meine Liebe)는 각각 op.127의 2번과 3번곡으로, 5번 곡 <네 뺨을 내 뺨에 대보렴>(Lehn deine Wang' an meine Wang)과 17번 곡인 <내 마치 천천히 구르네>(Mein Wagen rollet langsam)는 op.142의 2번과 4번으로 출판된다.

《시인의 사랑》의 내용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눠진다. 1번곡부터 6번곡까지는 '사랑의 기쁨'에 대하여 7번곡부터 14번곡은 '실연의 고통', 15번과 16번곡은 '행복한 과거의 기억과 망각에의 갈망'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 하이네의 시는 아이러니적인데, 이 연가곡집에 나온 시들은 실연의 아픔을 현실로 하지만, 아름답게 혹은 희극적이고 과장되게 표현되어 있다. 슈만은 <서정적 간주곡>의 마지막 시를 연가곡 마지막 곡 <낡아빠진 못된 노래들>(Die alten, bösen Lieder)으로 배치한다. 하이네는 65번째 마지막 시에서 아이러니의 가면 뒤에 숨어있던 자신의 고통을 과장하며 풍자적으로 발설하는데, 이렇게 큰 슬픔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연가곡의 초반에 나타나는 사랑에 대한 아름다움을 회상하며 그렸다는 것이 굉장히 아이러니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가곡《시인의 사랑》은 실연의 고통과 과거의 사랑의 기쁨, 즉 고통과 기쁨이라는 상반된 감정을 모두 내포하며 꿈과 현실의 혼합을 잘 보여주는 아이러니적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아래의 <표 2>는 《시인의 사랑》의 노래 순서와 제목, 조성, 시집번호를 정리한 것이다.

---

49)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64.
50) 나성인, 위의 책, 64.

〈표 2〉 《시인의 사랑》의 노래 배열순서, 조성과 하이네의 시집번호

출판 번호		제목	조성	시집 번호
1	사랑의 기쁨	Im wunderschönen Monat Mai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f♯m/A	1
2		Aus meinen Tränen sprießen 내 눈물에서 움터 오르리	A	2
3		Die Rose, die Lilie, die Taube, die Sonne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	D	3
4		Wenn ich in deine Augen she 그대의 눈을 바라볼 때면	G	4
5		Ich will meine Seele tauchen 내 영혼을 담그고 싶어	b	7
6		Im Rhein, im heiligen Strome 라인, 그 거룩한 물결 속에	e	11
7	실연의 고통	Ich grolle nicht 원망은 않으리	C	18
8		Und wüßten's die Blumen, die kleinen 저 작은 꽃들이 안다면	a	22
9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d	20
10		Hör' ich das Liedchen klingen 노래 소리가 들리네	g	40
11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E♭	39
12		Am leuchtenden Sommermorgen 빛나는 여름날 아침	B♭	45
13		Ich hab' im Traum geweinet 꿈 속에서 울었네	e♭	55
14		Allnächtlich im Traume seh' ich dich 밤마다 꿈속에서 너를 본다네	B	56
15	행복한 과거의 기억과 망각에의 갈망	Aus alten Märchen winkt es 옛날 동화가 손짓하네	E	43
16		Die alten, bösen Lieder 낡아빠진 못된 노래들	c♯ →D♭	65

1번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은 오월의 봄과 마음 속에 찾아온 사랑을 노래한다. 이 곡은 조성은 A장조이다. 하지만 곡의 첫 시작이 A장조의 2도로 시작되는 곡이기에 한번에 A장조라는 느낌을 받기 어려운데, 이는 연가곡 전체에 내재된 복합 미묘한 감정을 첫 곡에서부터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2번곡인 <내 눈물에서 움터 오르리>의 조성 또한 A장조이다. 1번곡과 같이 꽃과 새를 제재로 하지만, 그 내용은 상반된다. 첫 곡에서 아름다운 5월에 핀 꽃을 묘사한다면, 두 번째 곡에서 이는 화자의 눈물 꽃으로 나타난다. 상반된 내용의 두 곡은 아이러니하게 같은 조성으로 표현되어 있다.

3번째 곡인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는 D장조로 그녀에 대한 사랑이 밝은 어조로 표현되며 한때 좋아했던 장미, 백합, 비둘기, 태양보다 아름다운 그녀가 자신의 마음을 차지했다는 내용이다. 4번째 곡은 <그대의 눈을 바라볼 때면>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나타난다. ‘Mund’와 ‘ganz’라는 단어에서 f와 g음을 사용하여 가장 높은 음까지 도달하지만 그 이후 사랑을 고백하는 문장에서는 반음계가 쓰이면서 불안한 감정을 나타낸다. 이는 고백과 동시에 감정이 약화되는, 앞으로의 불행을 예고하는 느낌을 강하게 준다.

제5곡 <내 영혼을 담그고 싶어>와 제6곡 <라인, 그 거룩한 물결 속에>는 종교적 색채가 보인다. 5곡에서 나오는 ‘tauchen(담그다)’이라는 단어는 ‘taufen(침례)’을 연상시킨다. 침례를 통해 자아가 물에 빠져 죽고 새로운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난다는 것과 영혼이 순수에 잠겨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고 싶은 것이 맞물린다.[51] 이런 순수함은 2연에서 입맞춤으로 깨져버리게 되는 반전이 나타난다. 6번째 곡에서는 라인 강의 성스러움이 나타난다. 원래 하이네의 시에서는 ‘schönen(아름다운)’라는 시어를 사용하였지만 슈만은 ‘heiligen(거룩한)’으로 바꿔 작곡하였다. 5번째 곡과 비슷하게 이 곡에서도 2연에서 반전이 보이는데 바로 성모 마리아가 그녀의 얼굴처럼 보이는 것이

51)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102.

다. 어디를 가나 보이는 그녀의 얼굴에서 불행한 사랑의 고통을 느낀다.

실연의 고통이 시작되는 제7곡 <원망은 않으리>는 연가곡의 전환점이 되는 곡이다. 조성은 C장조로서 5도로 하강하던 조성의 종착지로 볼 수 있다. 하이네는 원망하는 자신의 감정을 원망하지 않는다고 하지만, 슈만은 이 곡에서 그녀에 대한 원망과 자신의 감정을 피아노에서 끊임없이 쏟아낸다. 8번곡 <저 작은 꽃들이 안다면>은 꽃, 새, 별이 아닌 그녀만이 나의 고통을 잘 알 것이라는 것을 토로한다. 피아노의 반주도 32분음표의 자잘한 음표로 자연을 표현하다가 후에는 강한 스포르찬도와 후주를 통해 화자가 받은 고통을 표현한다.

9번째 곡부터 12번째 곡은 긴 후주를 포함한다. 9번째 곡인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는 사랑의 상실이 절정에 도달한 곡이다. 이 곡의 텍스트 또한 하이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이 들어가 있는 시이다. 슈만은 시끄러운 결혼식장을 피아노 반주로 표현하여 결혼식을 바라만 보는 화자의 쓸쓸함과 대비를 이루게 하여 그 고통을 표현한다. 10번째 <노래 소리가 들리네>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숲으로 도망친 화자의 마음이 잘 드러나 있다. 시어는 굉장히 강렬한 단어들로 그 느낌을 표현하지만 슈만은 아주 여린 느낌의 피아노 반주로 그 감정을 더욱 진하게 그려낸다. 다음으로 11번째 곡인 <한 청년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는 E♭장조로 밝게 풀어낸다. 하이네가 아말리아를 사랑할 당시 아말리아는 다른 이를 사랑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 상황을 그린 시이다. 자신이 격은 고통을 다른 사람의 사랑을 얘기 하듯이 그렸다는 점에서 아이러니한 효과가 나타난다. 12번째 곡 <빛나는 여름날 아침>은 B♭장조로 아름다운 멜로디가 그려지지만 화자가 지금껏 버텨왔던 감정이 꽃들의 말에 무너져 내린다. 감정을 들킨 당황스러움, 사랑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감정들을 피아노는 후주에서 풀어낸다. 계류음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오묘한 불협화음을 만들어내어 다음 곡의 내용을 암시한다.

13번째 곡인 <꿈속에서 울었네>의 조성은 e♭단조로 앞서 말한 5도권의 순환

을 깨뜨리며 ‘단절’의 효과가 드러난다. 꿈에서 깨 현실로 돌아온 화자는 죽음과 이별에 고통스러워한다. 피아노 또한 성악 선율을 비껴 스타카토를 사용하여 그 공허함을 표현한다. 14번째 곡 <밤마다 꿈속에서 너를 본다네>는 B장조로 화자는 이제 사랑의 고통과 끝, 죽음을 인정한다. 15번째 곡 <옛 동화가 손짓하네>은 E장조로 화자는 현실을 떠나 동화의 세계로 도피하지만 아침 햇살과 함께 물거품으로 사라진다.

<낡아빠진 못된 노래들>은 마지막 곡으로서 <서정적 간주곡>의 마지막 시이기도 하다. 이 시에는 하이델베르크의 와인 통 크기의 관, 마인츠 다리보다 더 긴 관 뚜껑과 같은 과장이 나타나는데, 이는 사랑의 고통을 강조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볼 수 있다. 또한 이 곡은 아주 긴 후주가 인상적인데 12번째 곡 <햇빛 반짝이는 여름 아침>에서 가져온 것으로 슈만은 이 후주를 통해 용서와 화해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어지는 장에서는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곡들인 1곡, 9곡, 11곡을 통해 슈만의 아이러니적인 표현을 좀 더 자세히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

2. 아이러니를 표현하는 대표적인 곡들에 대한 분석

1) 제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Im wunderschönen Monat Mai)

제1곡의 원시와 번역은 다음과 같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Als alle Knospen sprangen,	온갖 꽃봉오리 움터 오를 때
Da ist in meinem Herzen	그 때 내 마음 속에서
Die Liebe aufgegangen.	사랑이 솟아난 것이라네
Im wunderschönen Monat Mai,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Als alle Vögel sangen,	온갖 새들 노래할 때,
Da hab' ich ihr gestanden	그 때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네
Mein Sehnen und Verlangen.	내 그리움과 갈망을.

연가곡의 첫 번째 곡인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은 아름다운 5월이 묘사되고 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장면으로 시작된다. 하이네는 이 시에서 아이러니적인 어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시제를 과거로 썼다는 점과 연결이 된다. 이 시에서는 각 연마다 2개의 과거 동사가 등장하는데 1연의 sprangen과 aufgegangen, 2연의 sangen과 gestanden이 바로 과거 동사이다. 과거 시제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미 실연한 상태에서 과거의 행복한 사랑을 떠올리며 작시를 하였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픈 현실과 달리 시에 나타나는 시인의 회상은 굉장히 아름답다. 즉 표면에는 아름다운 사랑의 순간을 표현하고 있지만, 그 내면에 실연이라는 현실의 고통을 은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

이 하이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이다. 슈만은 이런 하이네의 어법을 굉장히 잘 알아챘고, 그 내재적 의미를 예술가곡으로 표현하였다. 이는 첫 곡의 모호한 조성에서도 나타나는데 다음의 표는 첫 번째 곡의 마디별 조성의 변화를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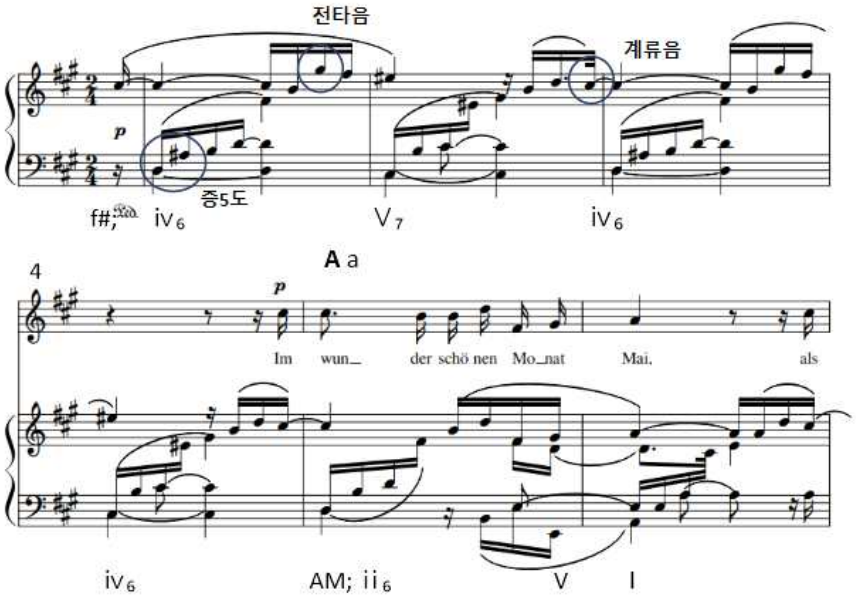
<표 3>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의 마디별 조성 변화

악절 구조		마디	조성
전주		1-4	f#m
A	a	4-7	AM
	b	9-10	bm
		11-12	DM
간주		12-15	f#m
A	a	15-19	AM
	b	20-21	bm
		22-23	DM
후주		23-26	f#m

곡은 4마디의 연주로 시작하여 8마디(4+4)의 노래 악절로 이어지고, 다시 4마디의 전주가 간부로 변형 반복 된 후, 8마디의 노래 악절이 2연으로 반복되는 AA의 구조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4마디의 후주로 마무리된다. 즉 이 곡은 유절형식으로 1연과 2연의 형식은 동일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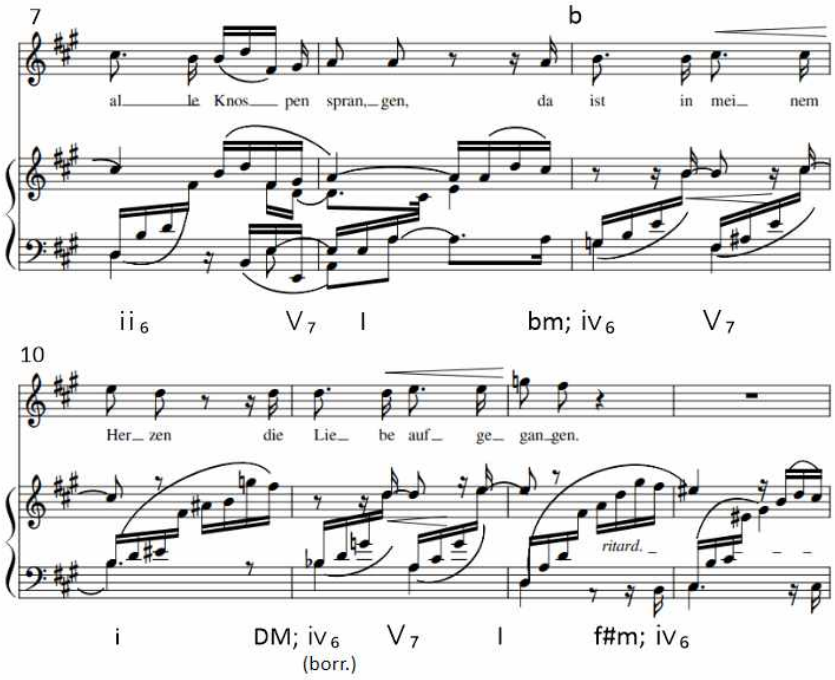
이 곡에서는 전주, 간주, 후주의 조성은 f#단조이다. 못갖춘마디로 시작하는 전주는 비화성음인 계류음(suspension)과 전타음(appogiaura), 증5도를 통해 f#단조의 iv_6에서 V_7화음으로 가는 진행을 반복하다가 마디 4에서 노래가 시작되고 A장조로 전조된다. 현재의 시간에서 과거를 회상하며 아름다웠지만 이루지 못한 사랑의 아픔을 표현하는 시인의 심경을 전달하듯 I로 해결되지 않은 채 A장조로 넘어간 뒤 마디 6에서 I로 해결된다(악보 1).

<악보 1>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마디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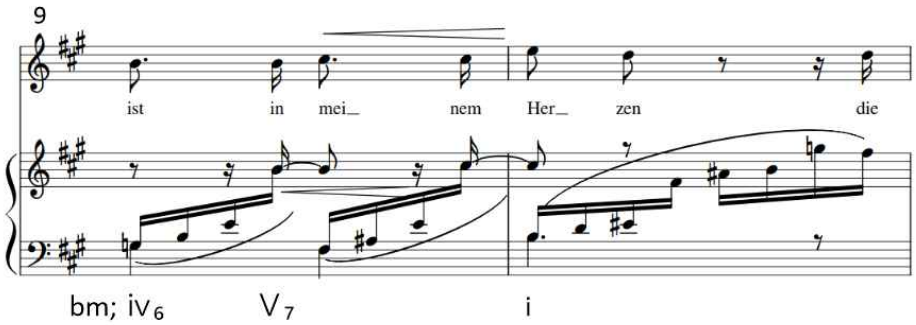
A장조로 노래가 시작된 후(마디 5) 간주가 연주(마디 12)되기 전까지 2번의 조성 변화가 일어난다. 마디 9에서 b단조로, 그리고 마디11에서 D장조로 바뀐다. 이는 고백할 당시 불안하기도 하면서 설레는 감정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악보 2).

<악보 2>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마디 7-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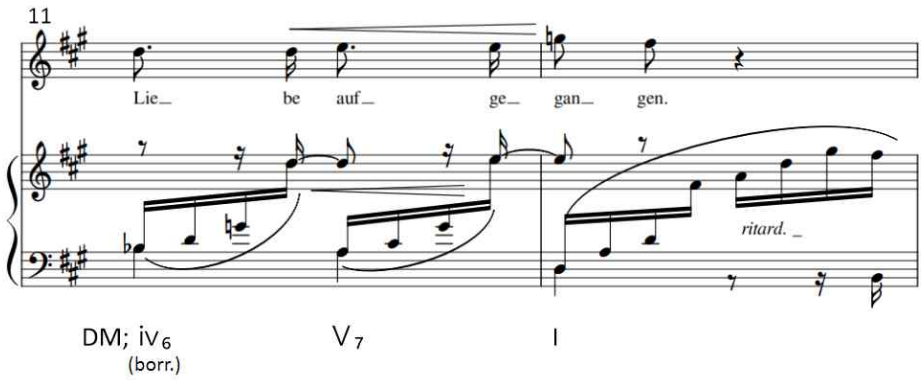
또한 ‘da ist in meinem Herzen’ 이 나오는 마디, 즉 내 마음을 표현하는 9, 10마디에서 장조에서 단조로 전조한 것은 화자의 불안한 마음을 조성으로 표현한 것이다. b단조는 아픔을 표현하는 조성인데, 슈만은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마디9 첫 박에 나오는 ‘ist’ 는 독일어의 sein동사로써 ‘~이다’ 라는 be동사의 의미를 가진다. 시에서 모든 동사가 과거로 쓰이지만 이 연에서만 ‘ist’ 라는 현재 시제가 쓰인 것은 사랑이 시작했던 아름다운 과거를 외면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실연한 현재의 자신의 은닉된 고통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슈만은 이러한 시어에 내재된 아이러니적인 어법을 단조를 통해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악보 3).

<악보 3>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마디 9-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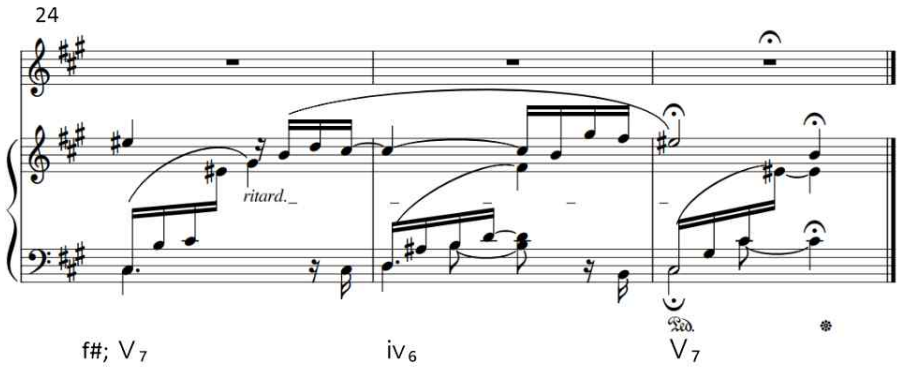
마디11에 사랑을 의미하는 'Liebe'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슈만은 여기서 D장조로 전조하지만, 차용 화음인 g단3화음을 사용하였다. 겉으로 보기엔 장조로써 표현하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단어를 밝게 표현한 것 같지만, 현재 실연한 사랑이라는 아이러니적 의미를 단조의 차용 화음을 빌려와 사용한 것이다(악보 4). 이렇게 차용 화음을 통해 감춰진 아픔을 표현하는 부분은 7번곡 <원망은 않으리>에서도 등장한다. 엄청난 원망임에도 불구하고 원망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화자의 감정을 단조적 차용 화음을 사용하여 나타낸다.

<악보 4>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마디 11



이후 4마디의 짧은 간주(마디12-15)를 통해 2절로 넘어간다. 간주에서는 전주에서 보았던 화성 흐름이 나타나며, 노래가 시작되면 또 다시 A장조로 전조되어 1절과 같이 진행된다. 슈만은 이 곡을 완전 종지가 아닌 반종지로 마무리지어 이루어지지 못한 사랑에 대한 시인의 아픔과 그리움, 갈망을 후주인 피아노 반주로 표현함으로써 하이네 시어에 감춰진 아이러니를 드러내고 있다(악보 5).

<악보 5> 제 1곡 <눈부시게 아름다운 오월> 마디 24-26



2) 제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제9곡의 원시와 번역은 다음과 같다.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그건 피리 소리, 깽깽이 소리,
Trompeten schmettern [darein];	거기 나팔소리도 시끌벅적해
Da tanzt [wohl] den Hochzeitreigen	결혼식 둘레춤 잘도 돌아가는데
Die Herzallerliebste mein.	거기서 춤추는 건 내 사랑 그녀
Das ist ein Klingen und Dröhnen,	그건 뿌뿌소리, 쿵쿵소리,
[Ein Pauken und ein Schalmei'n];	북이며 갈대피리 소리
Dazwischen schluchzen und stöhnen	그 사이 흐느끼고 탄식하는 건
Die [lieblichen] Engelein.	저 사랑스러운 작은 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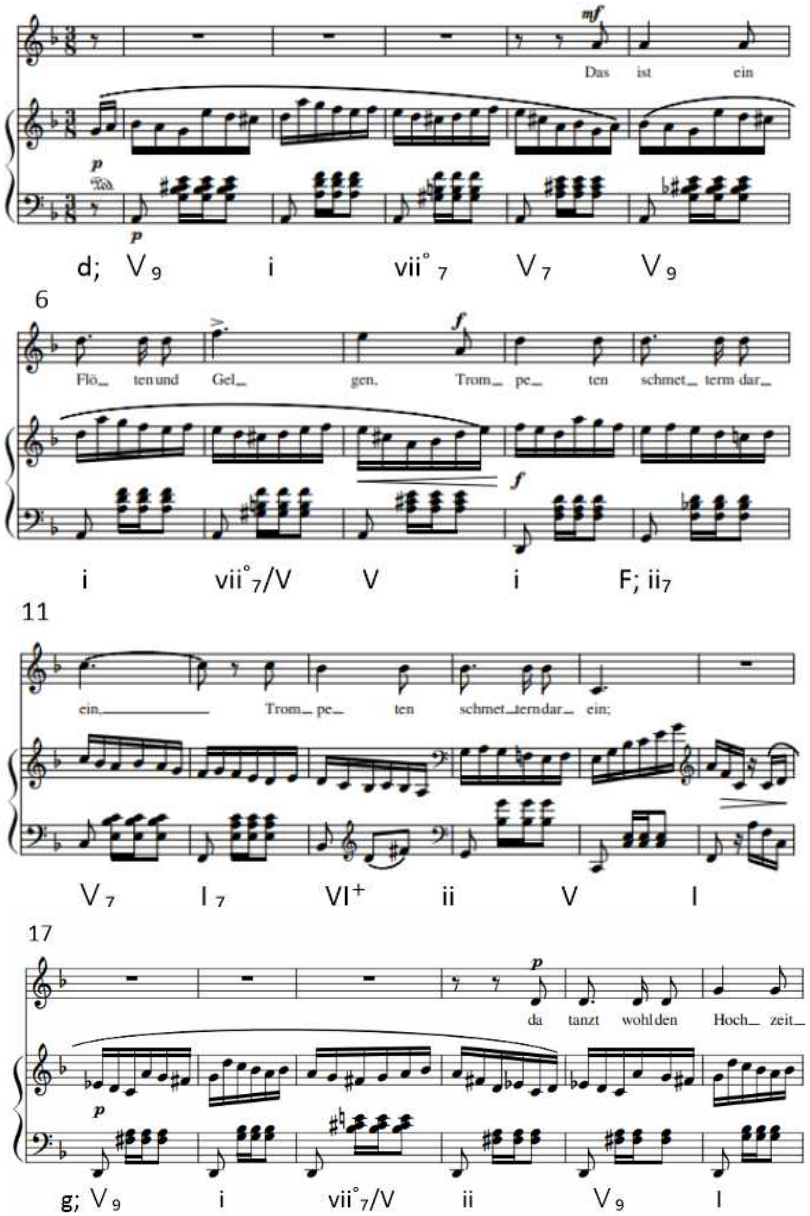
9 번째 곡인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는 시의 내용부터 아이러니한데, 그 이유는 화자가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의 결혼식의 장면을 그리기 때문이다. 분명 화자에게는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음악과 춤이 함께하는 시끌벅적한 결혼식의 장면을 묘사하며 자신의 고통을 한층 더 처절하게 표현하였다. 슈만 또한 피아노에 결혼식의 장면을 묘사하고, 조성을 통하여 화자의 고통을 나타낸다. 다음은 악절 구조와 조성을 좀 더 자세하게 표로 정리한 것이다(표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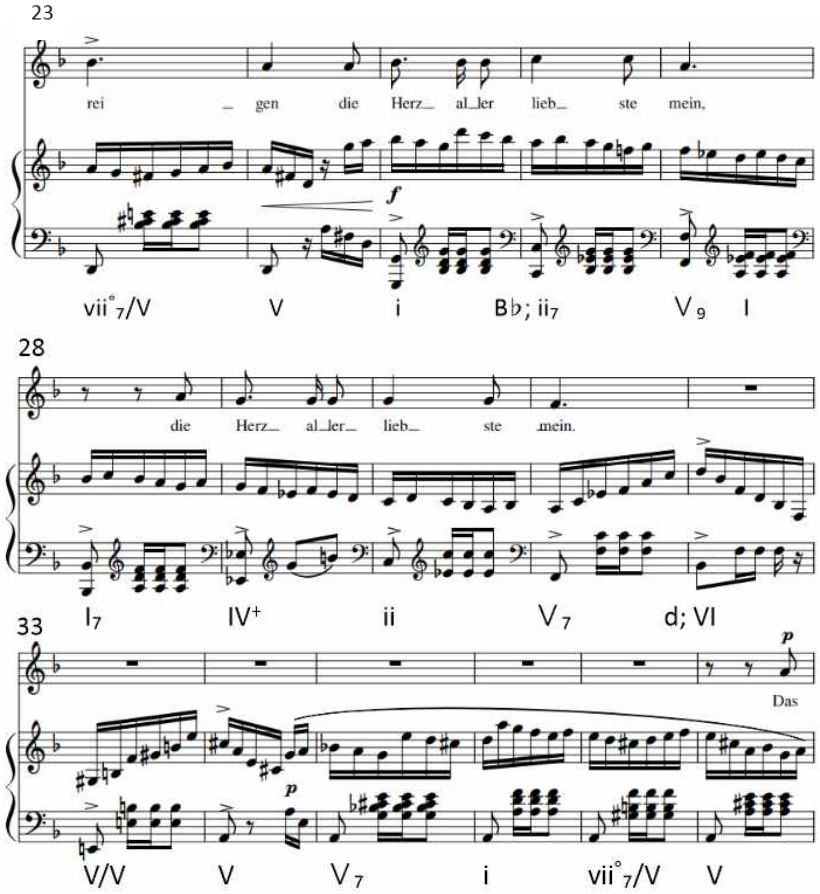
<표 4>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의 마디별 조성 변화

악절 구조	마디	조성
전주	1-4	dm
A	5-15	dm/FM
간주	16-20	gm
B	21-31	gm/B♭M
간주	32-38	dm
A'	39-49	dm/FM
간주	50-54	gm
B'	55-65	gm/B♭M
후주	66-84	dm/DM

곡은 d단조의 못갖춘마디로 시작된다. 마디5부터 노래가 시작되며 d단조로 진행되다가 마디10에서 F장조로 전조된다. 다시 마디16에서 4마디의 짧은 g단조 전주가 나오고, 마디21부터 다시 노래가 이어진다. 마디26에서 B♭장조로 전조한 뒤 마디32에서 다시 d단조로 전조 후 간주가 이어진다. 후에 같은 형식으로 A'와 B'가 반복되고, 후주는 d단조에서 D장조로 전조하여 끝을 맺는다. 슈만은 하이네의 의도가 더욱 강조되게 하기 위해서 피아노에서 결혼식의 흥겨운 음악 소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묘사하지만(악보6), 전주, 간주(마디32-38), 후주에 곡의 조성을 죽음과 아픔을 나타내는 d단조로 작곡하여 화자의 아픔, 즉 시에 내재된 아이러니를 표현하고 있다. <악보 6>에서 곡 전반에서 시끌벅적한 결혼식 상황을 그리는 피아노 반주부를 볼 수 있다. A'와 B'는 같은 조로 진행되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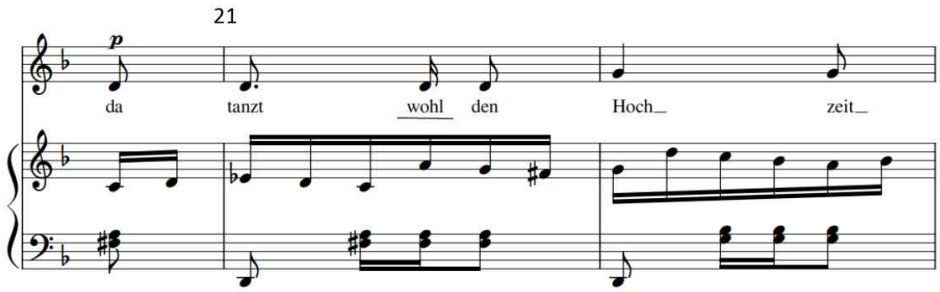
<악보 6>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마디 1-38




23
rei gen die Herz_ al_ler lieb_ ste mein,
f
vii°7/V V i B♭; ii7 V9 I
28
die Herz_ al_ler_ lieb_ ste mein.
I7 IV+ ii V7 d; VI
33
p
Das
p
V/V V V7 i vii°7/V V

이 곡을 작곡할 때 슈만은 하이네 시를 약간 수정하였는데, 원시의 괄호 안에 들어간 것이 슈만이 수정한 내용이다.[52] 1연에서는 ‘drein’을 ‘darein’으로 바꾸고, ‘매우, 잘’이라는 의미를 가진 ‘wohl’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 원시에는 없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시끌벅적한 결혼식과 사랑하는 연인이 결혼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상황을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여[53] 고통을 드러내게 하였다(악보 7).

<악보 7>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마디 21-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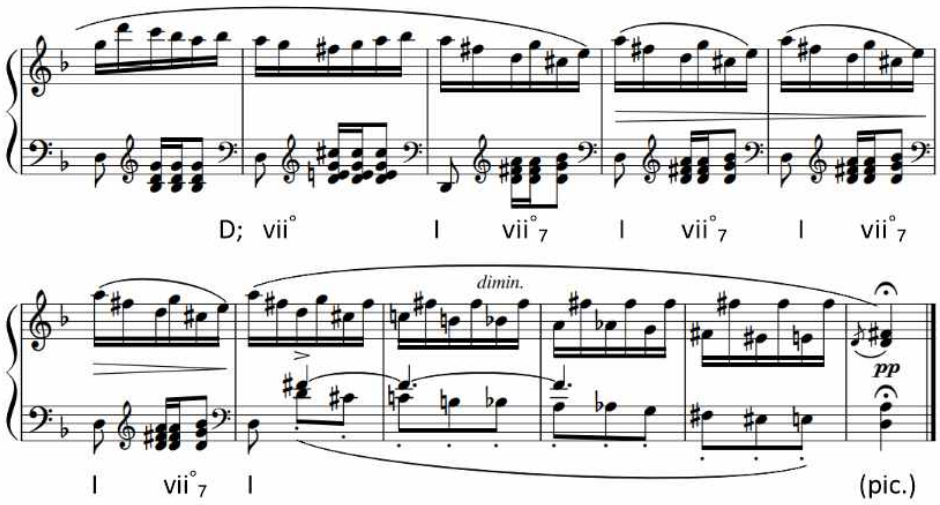


이 곡은 19마디의 긴 후주(마디 66-84)로 마무리된다. 후주는 d단조에서 시작하여 D장조로 전조(마디 75)되지만, 끝나기 직전인 마디80부터 마디83까지 시의 마지막 연에 나오는 천사의 흐느낌을 표현하는 듯 반음계 진행을 하면서 화자의 고통을 한 번 더 나타내고 피카르디 종지로 끝난다(악보 8). 이는 환상을 깨듯이 화제를 급속히 바꿔 결말을 맺는 하이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을 표현하는 듯하다. 16분음표의 빠른 리듬으로 지속되는 피아노 소리가 노래가 끝난 후 오랫동안 후주에서 지속되는 것은 화자의 고통에 무심한 채 계속해서 결혼식이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준다. 즉 화려한 결혼식을 묘사하지만, 고통에 흐

52) 본 논문에서 분석하는 모든 곡에서 슈만이 수정한 시어가 있을 경우 괄호로 표시해 두었다.
53) 이아람, “H. Heine의 서정적 간주곡 중 음악적 표현을 위한 R. Schumann의 시어 선택에 대한 연구 : Dichterliebe Op.48을 중심으로.”, 54.

느끼는 화자의 마음을 아이러니하게 묘사하는 시적 의미를 슈만은 이러한 피아노 반주를 통해 표현하고 있다.

<악보 8> 제 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마디 80-84



3) 제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제11곡의 원시와 번역은 다음과 같다.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Die hat einen andern erwählt;	근데 그녀는 딴 놈을 찍었지
Der andre liebt eine andre,	그 딴 놈은 또 딴 여자가 좋아서
Und hat sich mit dieser vermählt.	그 놈 그렇게 장가가고 말았네
Das Mädchen nimmt aus Ärger	소녀는 열 받아서 아무 놈이나 잡았어.
Den ersten besten Mann,	
Der ihr in den Weg gelaufen;	첫 번째 걸린 놈이 최고란 말마따나
Der Jüngling ist übel dran.	어쩌다 마주친 그 낭군님이랑
	그래서 제일 처음 총각은 뒤집어졌다네
Es ist eine alte Geschichte,	이건 그냥 케케묵은 이야기일 뿐인데
Doch bleibt sie immer neu;	하지만 들을 때마다 새롭다니
Und wem sie just passieret,	이런 일을 막 겪은 어떤 사람만
Dem bricht das Herz entzwei.	마음이 두 동강 날 뿐이라네

제 11곡인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는 E♭장조이며, 연가곡 전체에서 가장 밝고 경쾌한 곡이다. 시에서 화자는 재미있는 옛날이야기를 말하는 듯, 남의 사랑 이야기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사실 하이네 본인의 사랑을 빗대

어서 말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하이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을 발견할 수 있다. 자신이 겪은 아픔이지만, 자신과는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사랑 이야기를 희극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자신의 아픔을 숨기려는 듯하다. 슈만은 시의 분위기에 맞춰 밝은 장조를 사용하여 작곡하였다. 이 곡의 악절 구조는 다음과 같다(표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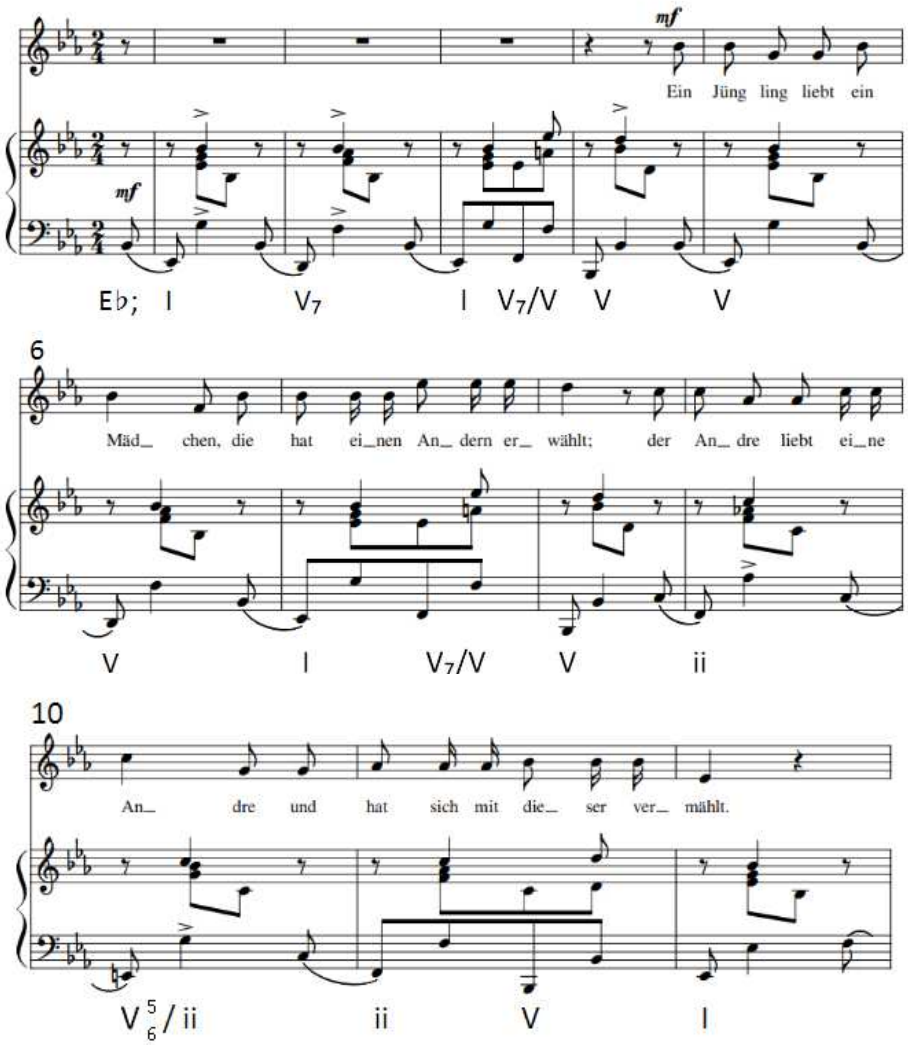
〈표 5〉 제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마디별 조성 변화

악절 구조	마디	조성
전주	1-4	E♭
A	4-12	E♭
간주	13-16	B♭
B	17-24	B♭/E♭
C	25-32	E♭/G♭/E♭
후주	33-46	E♭

곡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여 마디 4부터 노래가 시작된다. 다음 연으로 넘어가기 전 마디 13에서 5도 위인 B♭장조로 전조하여 2연의 이어지는 이야기에 대한 흥미진진함을 미리 나타낸다. 이어서 마디 24에서 다시 E♭장조로 전조하고 마디 25부터 마디 32에서는 갑작스럽게 G♭장조로의 전조(마디29)가 나타나다가 다시 원조로 돌아와 긴 후주(마디 33-마디 46)를 보여주고 곡이 마무리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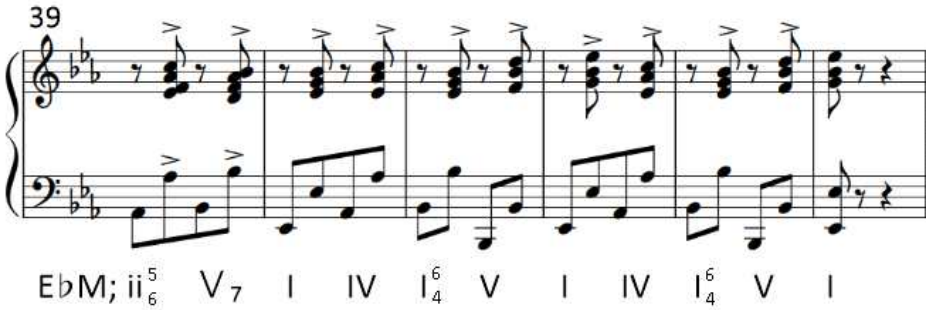
화자는 마지막 연에서 ‘entzwei’라는 ‘둘로 갈라져서’라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아픔을 내비추는데 슈만은 이를 리듬으로 표현하였다. 노래성부가 2/4박자의 단순한 박절을 고수하는 반면, 피아노 반주는 이음줄과 약박의 액센트를 통해 2/4박자의 박절을 지속적으로 어긋나게 하는 리듬을 연주한다. 노래와 반주의 이러한 불일치는 어긋난 사랑을 암시하는 동시에 해학적인 가사와 장조 속에 아이러니하게 숨겨진 실연의 아픔을 발설한다. 곡의 첫 시작은 못갖춘마디로 시작하고, 약박에 악센트를 줌으로써 엇갈린 사랑에 대해 표현한다(악보 9).

〈악보 9〉 제 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마디 1-14



후주의 마지막 부분(마디39-43)에서는 이음줄을 쓰지 않고 약박에 있는 악센트만 남겨둠으로써 싱커페이션을 강조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어긋난 사랑으로 인해 두 동강이 난 화자의 아픔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악보 10).

〈악보 10〉 제11곡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 마디 39-44



Ⅳ. 결 론

본 논문은 아직까지 슈만의 예술가곡에서 연구되지 않았던 '아이러니' 적인 어법을 연가곡 《시인의 사랑》(Dichterliebe, op.48)을 통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목적은 가사를 제공한 하이네 시의 의미를 아이러니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슈만이 이를 어떻게 음악화하였는지 고찰하여, 작곡가의 의도를 바르게 해석하고 연주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다.

연구방법으로 우선 예술가곡의 이론적 배경인 낭만주의의 시대적 상황과 독일 낭만주의 예술가곡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아이러니의 의미와 하이네의 시에서 그의 아이러니적 어법이 어떻게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이어서《시인의 사랑》의 가사로 사용되었던 하이네의 시집인 《노래의 책》중 〈서정적 간주곡〉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 연가곡집에서 가지는 특징적인 조성의 관계와 전체적인 개괄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하이네와 슈만의 아이러니를 가장 잘 드러낼 수 있는 제1번 〈기적처럼 아름다운 5월에〉, 제9번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 제11번 〈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를 집중적으로 분석 연구하여 하이네의 시에서 나타나는 아이러니적 어법과 슈만의 작곡에서 아이러니가 어떻게 드러났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예술가곡은 낭만주의 시대의 특징적인 장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문학과 음악을 결합하려는 움직임과 괴테, 하이네 등 유명 시인의 등장과 함께 발달한 서정시와 그 흐름을 같이 한다. 슈만의 예술가곡은 피아노 반주 부분의 발전이 눈에 띄는데, 특히 전주, 간주, 후주에서 피아노 역할의 비중이 높아진다. 전주, 간주, 후주를 통해서 시에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부분을 피아노를 통해 표현하기 시작하며 곡의 전반적인 완성도를 높이게 된다. 또한, 문학적으로도 뛰어난 능력을 보였던 슈만은 유명 시인들의 시를 가사로 이용하여 작곡하

였고 그 중 하이네의 시를 가사로 많이 사용하였다.

하이네는 낭만주의와 사실주의 사이에 위치하는 시인이다. 그의 아이러니는 꿈과 현실의 세계를 혼합하는 데에서 나타나며, 이상과 현실 또는 사랑과 죽음과 같은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게 되고 이에 따른 상반된 감정이 드러난다.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서정시, 발라드, 페트라르카주의 문학에서 영향을 받아 아름다운 사랑이 아닌 비참한 사랑을 주제로 작시하였고, 이는 사랑의 이별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후에 하이네는 자신의 아픈 사랑의 경험을 뛰어넘어 불행하였던 그의 사랑을 다양하게 변주시켰고, 예술작품으로써 승화시켰다.

하이네의 작품에 정신적인 교감을 느낀 슈만은 하이네의 특징적인 어법인 아이러니를 가장 잘 이해한 작곡가이기도 하다. 슈만은 하이네의 아이러니를 대부분 조성과 화성 및 시의 장면 묘사로 나타내었고, 리듬을 활용하거나 반음계적인 진행을 통하여 아이러니적 어법에 숨어있는 내면의 표현을 더욱 적나라하게 나타낸다.

그 결과 제 1곡 <기적처럼 아름다운 오월에>을 작곡할 때에 나란한조 관계인 f#단조와 A장조를 사용하여 현재와 과거의 기준을 나눠 자신의 심정을 표현하였으며, 곡 전체는 f#단조의 색깔이 나타나지만 정격 종지를 A장조에서 보여주고 f#단조의 반종지로 끝을 맺어 이뤄지지 않은 사랑을 모호한 조성을 통해 나타내었다. 나의 마음을 나타내는 'da ist in meinem Herz' 라는 문장이 나타날 때 b단조로 전조되는데 이는 화자의 불안한 마음을 조성으로써 나타낸 것이다. 또한 시에서 모두 과거시제를 사용하는데, 이 문장에서만 'ist' 라는 현재시제를 사용하여 현재 실연한 자신의 아픔을 암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또한 사랑을 의미하는 'Liebe' 단어의 본 의미에 맞게 장조로 전조하지만, 그 속의 아픔을 표현하기 위해 단조적 차용 화음을 가져와 사용하였다. 제9곡 <그건 피리소리, 깽깽이 소리>에서는 시의 장면 묘사를 통해 하이네의 아이러

니를 드러내려한다. 화자가 사랑하는 여인의 시끌벅적한 결혼식 장면을 피아노 반주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나타내는데, 이는 화자의 아이러니한 상황을 더욱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이어서 제11곡<한 총각이 한 처녀를 사랑했네>에서는 자신의 아픈 사랑 이야기를 재밌게 남 얘기 하듯이 표현하는 것에서 아이러니가 드러나는데, 슈만 또한 E♭장조로 밝게 작곡하였다. 하지만 피아노 반주는 정박으로 가는 성악 선율과는 달리 이음줄과 악센트를 이용하여 2/4박자의 박절을 어긋나게 함으로써 두 동강 난 화자의 마음과 엇갈린 사랑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분석 연구를 통해 슈만의 예술가곡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 하이네의 아이러니를 드러냈음을 알 수 있었다. 피아니스트들은 본 논문을 통해 슈만이 하이네의 아이러니적 어법을 자신의 음악에 어떻게 결합하고 표현하였는지를 이해하여 연주하고, 더 나아가 하이네의 시를 텍스트로 이용한 슈만의 다른 곡에서도 이를 적용하여 더욱 수준 높은 연주를 이루어야 하겠다.

참고문헌

1. 국내 저서

나성인. 『하이네, 슈만, 시인의 사랑』. 풍월당, 2019.

엄선애. 『독일음악 속의 문학』. 경성대학교 출판부, 2006.

음악지우사. 『작곡가별 명곡해설 라이브러리 슈만』. 도서출판 음악세계, 2002.

홍세원. 『낭만파 음악』. 연세대학교 출판부, 2010.

홍정수, 김미옥, 오희숙. 『두길 서양음악사2』. 나남, 1997.

홍정수, 오희숙. 『음악미학』. 음악세계, 1999.

홍정수, 조선우. 『음악은이』. 음악춘추사, 2000.

2. 번역서

Behler, Ernst. *Irony and the Discourse of Modernity.* University of Washintong Press, 1990. 이강훈, 신주철 공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동문선, 2005.

Fischer-Diskau, Dietrich. *Das deutsche Klavierlied.* Berlin Universitiy press, 2012. 홍은정 역. 『리트, 독일예술가곡』. 포노, 2018.

Gorrell, Lorraine. 『19세기 독일가곡』. 심송학 역. 음악춘추사, 2003.

Grout, Donald J./ Palisca, Claude V. / Burkholder, J. Peter. *A HISTORY OF WESTERN MUSIC SEVENTH EDITION.* W. W. Norton & Company, Inc, 2006. 민은기, 오지희, 이희경, 전정임, 정경영, 차지원 공역. 『그라우트의 서양음악사 제7판(하)』. 이앤비플러스, 2013.

Heine, Heinrich. *Buch der Lieder.* Hoffmann und Campe, 1975.

이재영 역. 『노래의 책 : 하인리히 하이네 시집』, 열린책들, 2016.
플라톤. 『에우튀프론』. 강성훈 역. 이제이북스, 2001.

3. 국내 학위논문 및 학술지

김미영. “예술에서 예술가곡으로.” 『낭만음악』9(1996): 125-141.
김미영. “F. 슈베르트와 리트.” 『서양 음악학』4(2001): 207-231.
김지혜. “R. 슈만의 연가곡 《리더크라이스》(Liederkreis, op.24)에 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7.
김희열. “독일 가곡과 슈만의 문학적 음악세계.” 『독어독문학』(2009) :161-183.
엄선애. “하인리히 하이네의 노래의 책과 로베르트 슈만의 시인의 사랑.” 『독일어문학』(2007): 350-369.
이훈진. “Robert Schumann의 <유머레스크>(Humoreske Op. 20)에 나타난 유머 연구.” 단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9.
이혜인. “Robert Schumann의 연가곡 Dichterliebe Op.48 분석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6.
이아람. “H. Heine의 서정적 간주곡 중 음악적 표현을 위한 R. Schumann의 시어 선택에 대한 연구 : Dichterliebe Op.48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9.

4. 인터넷 자료

http://s-cp.s-oil.com/home.do. [2020년 10월 23일 접속].

5. 악보

Schumann, Robert. *Gedichte von Eduard Mörike*. Leipzig: Perters, 1999.

ABSTRACT

A Study on the ironic expression showed in R. Schumann's song cycle 《Dichterliebe》

Lee Yu Ri
Department of Collaborative Piano Major
Graduate School of Sungshin University

This thesis studied the expression of "irony" in the song 《The Love of the Poet》 by the composer Robert Alexander Schumann(1810-1856). 'Irony' generally means the meaning of 'rony', meaning that the meaning the speaker intends to express and the words expressed on the surface are different. In other words, the irony is Heine's characteristic language that Schumann expressed musically.

First of all, I searched the romantic art songs and Schumann's art songs, and the meaning and origin of irony, and how irony appeared in Heine's poem. How Heine's irony appears in Schumann's art song is presented through Schumann's famous love song, 《The Love of the Poet》. After reviewing the general overview of 《The Love of the Poet》 and the characteristic compositional structure of Schumann in this song, 1st song <Im wunderschönen Monat Mai>, 9th song <Das ist ein Flöten und Geigen>, 11th song <Ein Jüngling liebt ein Mädchen> which shows the expression of Heine's irony well was se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of the study, Heine used irony in a beautiful poetic language on the surface, but contained the pain of love within it, and the topic was rapidly switched to a romantic tone and ended with a satirical ending. Heine's ironic phraseology can be seen as starting from the pain of a breakup. Later, Heine sublimated his unfortunate love into a work of art through various expressions. Schumann is one of the composers who felt a deep formal sympathy with Heine's work and expressed his poems well in art songs. He expressed most of Heine's ironic language through composition or harmony, and put scenes of poetry on the piano. Or, the pain hidden in the beautiful poem was simply expressed in monotonous harmony, borrowed monotonic borrowed harmony, and the composition of the song was written vaguely. In addition, scenes that can reveal irony appear directly on the piano to further highlight the speaker's feelings through the piano. Schumann revealed irony through these various methods, and expressed the inner meaning through music that the texts in poetry alone were insufficient.